



KIEP 기초자료
23-05

2023년 5월 15일

라오스 경제 위기 가능성 진단 및 시사점

정재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wcheong@kiep.go.kr, 044-414-1051)

김소은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kse@kiep.go.kr, 044-414-1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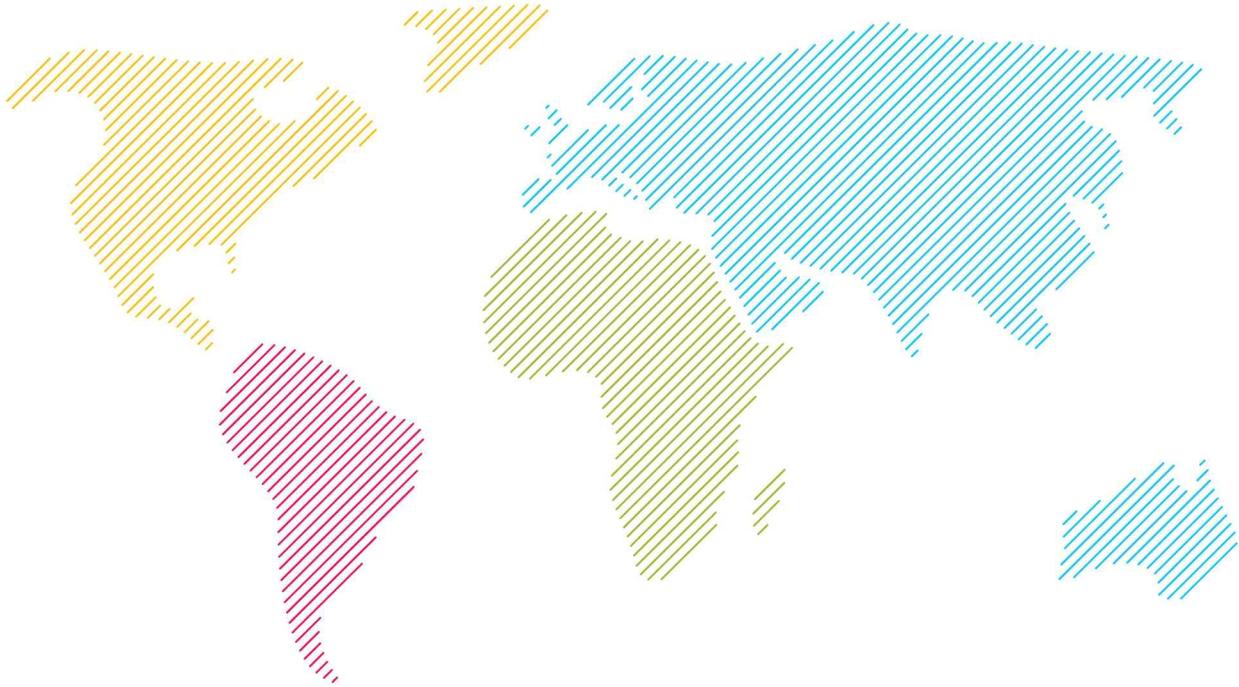
라오스 경제 위기 가능성 진단 및 시사점

요약

- ▶ 라오스는 2021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물가 급등, 깡(kip)화 가치 하락, 대외채무 증가에 따라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급기야는 ‘채무불이행(Default)’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라오스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전쟁의 영향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됨.
 - 경제 불안 고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내륙국 특성상 심해항구 미보유 △물류 인프라 열악 △제조업 미발달 △소비재와 자본재 대부분 수입에 크게 의존 △만성적인 외환 부족 등이 꼽힘.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전쟁으로 발생한 △국내외 물류 및 공급망 붕괴 △생산 및 소비 둔화 △관광 산업 붕괴 △글로벌 고물가 지속과 주요국의 금리 인상 러시 등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고 있음.

- ▶ 최근 라오스와 주요 파트너국 간 채무 재조정 협상,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와 외국인 관광객 유입, 라오스의 교역 및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단기적으로 라오스의 디폴트 상황 발생 확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최근 라오스 정부는 주요국과 함께 공적대외채무에 대한 양자 간 재조정 협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채무 증가의 근본 원인인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음.
 - 라오스 경제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중-라 경제교류 및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 활발한 전류 수출, 정부의 수출진흥책 추진 등을 바탕으로 성장세가 2023년부터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경제 불확실성을 불식하고 디폴트 가능성을 확실히 낮추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 △통화 가치 안정 △채무 재조정 성공 등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확보, 채무관리 강화, 금융 안정성 확보,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이 추가로 요구됨.

- ▶ 라오스는 한국과의 경제협력 규모는 다소 작지만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전략적 경제안보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이므로 라오스 경제의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더 나아가 경제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라오스는 한국의 전통적인 ODA 중점협력 대상국이자 현 정부가 강조하는 인태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당사국이기에 한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의미가 있음.
 - 따라서 양국은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 △개발협력전략 재점검 △글로벌 공급망(GSC) 측면에서의 라오스 활용 방안(특히 희토류 포함) 수립 △기업 차원에서 라오스 물류 인프라 발전 가능성에 따른 중장기 투자전략 재수립 등이 요구됨.



차 례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라오스 경제의 최근 추이 및 구조
 - 가. 경제성장 과정 및 특징
 - 나. 대내 부문
 - 다. 대외 부문
3. 경제 불안 배경과 디폴트 가능성 진단
 - 가. 경제 불안의 주요 배경
 - 나. 정부의 대응
 - 다. 디폴트 가능성 진단과 과제
4. 라오스 경제 전망과 중점 개발 방향
 - 가. 경제 전망
 - 나. 중점 개발 방향
5. 한·라오스 경험 현황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가. 양국 간 경험 현황
 -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아세안(ASEAN) 회원국이자 메콩강(Mekong River) 경제권의 일원인 라오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 중이던 2021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 급상승, 자국통화 킵(kip)화 가치 급락, 대외채무 증가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시작함.

- 소비자물가는 2021년 3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2년 5월 이후에는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급등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2023년 초까지 이어지고 있음.
- 킵화의 대달러 환율 역시 2021년 10월부터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직전(2019년 12월) 8,858(월평균)에서 2022년 12월에는 16,608을 기록하였고 중앙은행 고시환율과 시장환율 간의 괴리가 급속히 확대되었음.
- 상시적인 외환부족에 시달리는 라오스는 최근 공적채무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외환보유액은 충분하지 않아 대외채무 상환 능력을 의심받기 시작함.

■ 라오스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고물가와 고금리는 라오스의 물가, 환율, 대외채무 등의 불안을 더욱 부추겼고 급기야 라오스의 디폴트(default) 가능성까지 제기됨.

- 라오스 정부는 금리 인상, 유류 공급 확대, 환율 통제 강화, 국유기업(SOE)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 불안은 2022년을 넘어 2023년 초반까지 지속됨.
- 대내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라오스는 대외채무 역시 증가하는 데다가 환율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의 '부채의 덩어리(debt trap)'에 빠져 '제2의 스리랑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고, 신용평가사들도 라오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함.

■ 본 자료는 라오스의 경제 상황과 구조를 살펴본 후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배경, 추이, 정부의 대응정책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 불확실성의 지속 여부와 디폴트 가능성 등을 진단하며, 한국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하고자 함.

- 먼저 라오스 경제의 최근 상황과 구조적 취약점을 분석한 후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환경 변화 등의 여파를 중심으로 경제 불확실성의 배경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 가능성을 진단함.
- 다음으로는 라오스 경제의 중단기 전망과 개발 방향을 점검함과 동시에 라오스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특히 한국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통한 양국 간의 협력 확대 방향을 도출함.

2. 라오스 경제의 최근 추이 및 구조

가. 경제성장 과정 및 특징

1) 경제성장 과정

■ 라오스는 1986년부터 경제체제를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을 추구하는 이행기 경제이며, 동남아 최대 강인 메콩(Mekong)강 본류에 위치해 유역개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 1986년 도입한 신사고(Cintanakan Mai)를 통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1999년 아세안(ASEAN) 가입과 2013년 WTO 가입 등을 통해 세계 경제에 본격적으로 편입함.
- 또한 메콩강 전체 유량(流量)의 35% 내외와 유역의 25%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확대메콩유역경제협력프로그램(GMS Program)과 ACMECS 등의 유역개발 혜택, 특히 물리적 및 제도적 연계성(connectivity) 개선 혜택을 많이 받고 있음.¹⁾

■ 라오스 경제는 1990년 이후 30년간 연평균 6.8%에 달하는 고성장을 지속하였으나 2018년부터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에는 성장률이 대폭 감소함.

- 라오스 경제는 풍부한 광물자원과 수자원을 통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 국제자원가격의 하락과 재해 등으로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졌고 2018년에는 자연재해,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함.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다소 회복되던 라오스 경제는 2022년 인플레이션, 연료 부족,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다시 2.5%로 하락함.

- 2022년 라오스 경제는 당초 동남아 대륙부의 물류망 개선과 국경재개 및 그에 따른 관광, 무역, 수송 부문의 회복 등을 바탕으로 2021년(3.48%)보다 다소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었으나 2022년 초부터 본격화된 물가 상승, 연료 부족, 국내외 투자 부진 등으로 인한 생산과 소비 활동 정체와 통화가치 급락 등으로 성장률은 오히려 하락함.²⁾
- 1인당 GDP의 경우 202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나 성장 둔화, 특히 킵(kip)화 가치 하락 여파로 2022년에는 2,100달러대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1) 정재원(2022), p. 9.

2) ADB(2023), p. 204.

표 1. 라오스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2017~22년)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추정)
GDP	십억 달러	16.85	18.04	18.74	19.08	19.21	15.92
GDP 성장률	%	6.89	6.25	5.46	3.28	3.48	2.50
1인당 GDP	달러	2,407	2,539	2,598	2,607	2,587	2,114
소비자물가상승률	%	0.83	2.04	3.32	5.10	3.76	16.90
수출	십억 달러	5.79	6.10	6.33	6.49	6.96	7.00
수입	십억 달러	6.99	8.13	8.02	8.23	8.85	9.47
경상수지	십억 달러	-1.26	-1.65	-1.32	-0.23	0.47	n.a
환율(평균)	궂/달러	8,351.5	8,450.4	8,679.5	9,045.5	9,696.5	13,672.1
인구	백만 명	7.00	7.11	7.21	7.32	7.43	7.53

주: 경상수지는 IMF 통계.

자료: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검색일: 2023. 4. 27); IMF Data(검색일: 2023. 3.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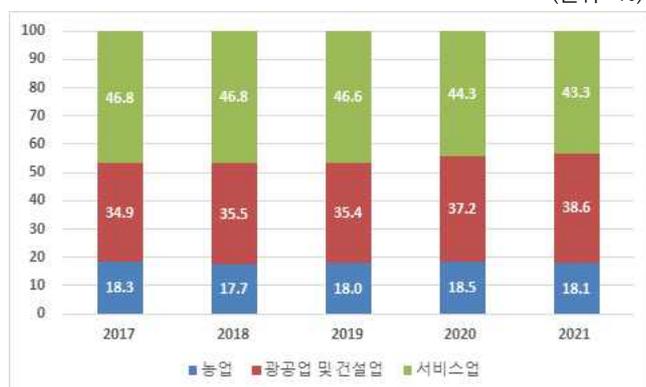
2) 산업 구조

■ 2000년대 들어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최근에는 광공업 및 건설업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임.

- 농림수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8.5%에서 2010년대 초반에는 19%대로 낮아졌고 그 후부터는 18%대를 유지함.³⁾
- 이에 반해 FDI를 통한 광물자원과 수자원 개발이 활발해지고 인프라도 개선되면서 GDP에서 광공업 및 건설업의 비중은 2000년 19.1%에서 2010년대 초반에 30%까지 높아졌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다른 분야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빨라 비중은 더욱 확대됨.

그림 1. 산업별 GDP 비중(2017~21)

(단위: %)



주: 실질가격 기준.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22(검색일: 2023. 3. 20).

그림 2. 광공업·건설업의 GDP 비중 변화(2010~21)

(단위: %)



자료: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22(검색일: 2023. 3. 20).

3) Asian Development Bank(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22(검색일: 2023. 3. 20).

■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광공업·건설업 부문에서는 최근 전기·가스업과 건설업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광업의 비중이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임(그림 2 참고).

- 활발한 FDI를 배경으로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 생산 및 수출 확대, 댐을 비롯한 인프라 건설 확대,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이 각각의 배경인 것으로 분석됨.
- 전력과 광업 부문은 관광 분야와 함께 라오스의 최대 외화카드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상황

■ 라오스의 SDGs 이행 상황은 전 세계 163개 국가 중 111위에 머무르고 있고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평균(65.9)보다 다소 낮은 63.4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⁴⁾

-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SDG 12)만 유일하게 목표를 달성한 가운데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SDG 9), 육상생태계 보전(SDG 15),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SDG 16), 건강과 웰빙(SDG 3), 기아 종식(SDG 2)은 심각한 도전(major challenges)에 직면해 있음.
-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SDG 17), 빈곤 퇴치(SDG 1), 불평등 감소(SDG 10), 양질의 교육(SDG 4), 깨끗한 물과 위생(SDG 6), 성평등(SDG 5),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 8), 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SDG 7),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 사회(SDG 11)는 여전히 중대한 도전(significant challenges)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됨.⁵⁾

그림 3. 라오스의 SDGs 이행 수준 및 추이(2021년 기준)



자료: Sachs *et al.*(2022), p. 270.

■ 라오스의 SDGs 이행 추이를 살펴보면, SDG 6, SDG 8, SDG 12는 순조롭게(on track or maintaining) 추진되고

4) Sachs *et al.*(2022), p. 270.

5) *Ibid.*

있고 SDG 1, SDG 2, SDG 3, SDG 5, SDG 7, SDG 9, SDG 11, SDG 17은 완만하게(moderately improving) 추진되나, SDG 4, 기후행동(SDG 13), SDG 16은 정체(stagnating)되고 특히 SDG 15는 후퇴(decreasing)하는 것으로 평가됨.⁶⁾

나. 대내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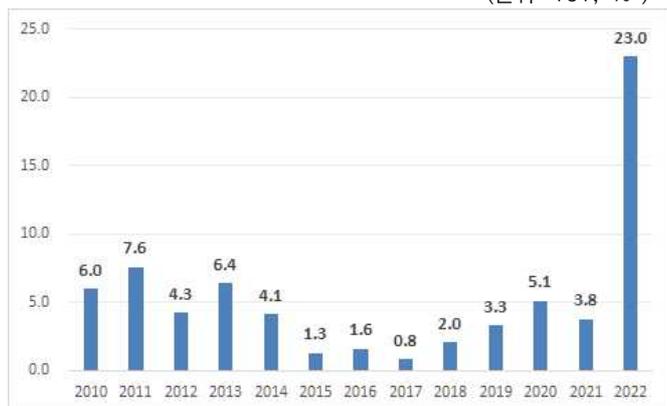
1) 물가

■ 라오스의 소비자물가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상승하였고 2021년 3.8%로 낮아졌다가 2022년에는 23.0%로 급상승함(그림 4 참고).

- 월 기준으로 보면, 라오스의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는 2021년 3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2022년 5월부터는 상승률이 두 자릿수에 달할 정도로 급등세를 지속함(그림 5 참고).
- 2015년을 기준(100.0)으로 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 초반까지는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중반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2022년 들어서 급상승하기 시작함.

그림 4. 연도별 CPI 상승률(20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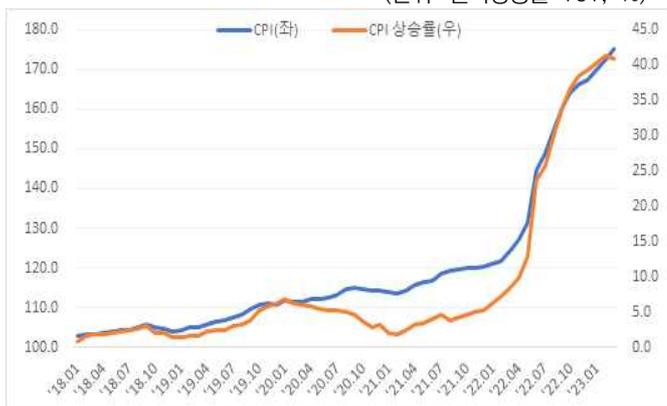
(단위: YoY, %)



자료: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22(검색일: 2023. 3. 20)와 ADB(2023), p. 290.

그림 5. 월별 CPI와 CPI 상승률(2018.1~2023.3)

(단위: 물가상승률 YoY, %)



주: CPI(2015.1=100.0)
자료: Laos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검색일: 2023. 4. 13).

■ 라오스의 소비자물가 급상승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특히 유류 가격의 급등) △자국 통화인 킵(kip)화 가치 폭락 △내륙국이라는 지정학적인 위치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대부분 소비재와 자본재를 수입하는 라오스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의 단절이나 붕괴는 가격 상승을 유발함.

6) Sachs *et al.*(2022), p. 270.

- 세계적인 고물가의 지속,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라오스의 물가 상승을 가속화함.
- 깡화의 대(對)달러 환율이 라오스의 수입 물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가운데 2021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이어진 환율의 급상승 여파가 소비자물가의 가파른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임.
- 내륙국이라는 특성상 높은 물류비용이 소비자물가의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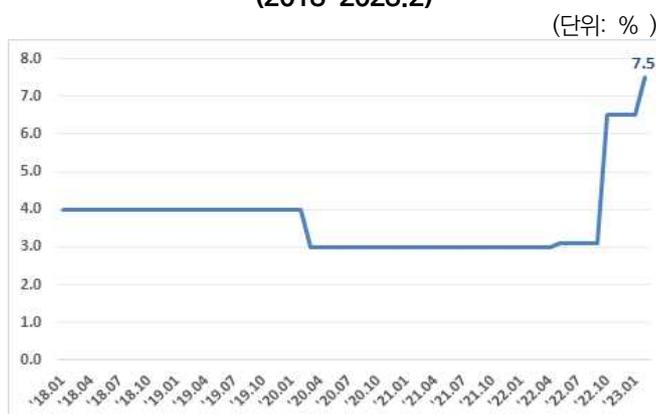
2) 금리 및 환율

■ 라오스의 정책금리는 2017년 11월 이후 4.0%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3월 3.0%로 낮아졌으나 물가가 급상승함에 따라 2022년 10월에는 6.5%를 기록한 데 이어 2023년 2월에는 7.5%로 상승함(그림 6 참고).

■ 2021년 9월까지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한 깡(kip)화의 대달러 환율(월평균 기준)은 2021년 10월부터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2022년 5월과 6월에는 전월대비 각각 9.0%와 12.9% 상승하는 급등세를 거쳐 2022년 말 이후에는 상승 폭이 둔화되고 다소 안정세를 유지함.

-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1달러에 8,800을 유지하던 깡화의 대달러 환율은 2021년 10월에는 10,000, 2022년 6월에는 14,000을 돌파하였고 2022년 11월에는 최고치인 16,615를 기록한 후 2023년 3월 기준 16,234로 미세하게 하락함.

그림 6. 월별 금리 추이
(2018~2023.2)



자료: CEIC(검색일: 2023. 3. 30).

그림 7. 깡(kip)화의 월별 대달러 평균 환율 및 상승률 추이
(2018~2023.2)



자료: CEIC(검색일: 2023. 4. 20).

3) 관광업과 본국 송금액

■ 라오스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던 관광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봉쇄로 외국인 방문객이 감소하였고 수입 측면에서 큰 타격을 받았으나, 2022년 5월 이후 관광객 입국이 허용되면서 점차 회복되기 시작함.

-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라오스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440만 명이고 관광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함.⁷⁾
- 라오스를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봉쇄 조치로 2021년에는 전무한 상황이었으나 2022년에는 국경재개로 130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

■ 해외 거주 라오스인의 본국 송금액은 점차 증가해 2019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을 받아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재외 거주 라오스인의 본국 송금액은 2019년 2억 9,700만 달러(전체 GDP의 1.6%)를 기록한 바 있으나 2022년에는 2억 달러(GDP의 1.2%)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됨(그림 9 참고).

그림 8. 라오스 관광업 추이
(20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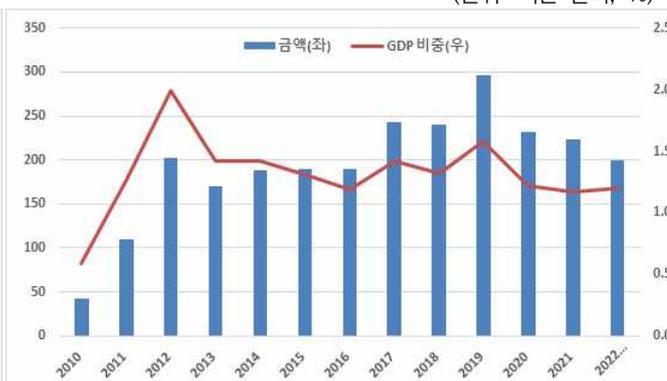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만 명)



자료: CEIC(검색일: 2023. 3. 31)와 ADB(2023), p. 204.

그림 9. 해외 거주 라오스인의 본국 송금액 추이
(2010~22)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CEIC(검색일: 2023. 3. 30)와 World Bank(검색일: 2023. 4. 13).

다. 대외 부문

1) 교역

■ 라오스의 대외교역은 2010년대 들어 빠르게 확대되어 2017년에는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정체된 상황이며, 무역수지 역시 2010년대 초중반 적자 기조에서 최근에는 다소 개선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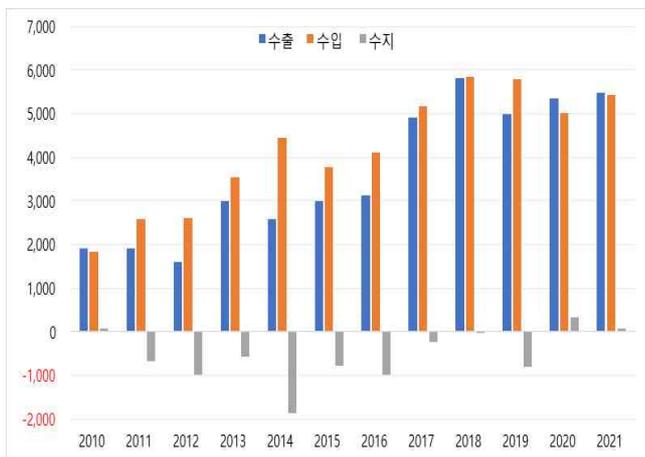
- 주요 수출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 중국, 베트남과 호주 등인 가운데 최근에는 태국의 비중이 축소되고 중국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이며, 주요 수입국 역시 태국, 중국, 베트남, 스위스 등인 가운데 태국 비중 축소와 중국 비중 확대가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임.

7) 自治体国際化協会 シンガポール事務所(2021), p. 11.

- 국경을 맞댄 3개국과의 교역 비중은 수출에서는 2011년 60.2%에서 2021년 78.3%로 늘어났고 수입에서는 같은 기간 87.9%에서 77.0%로 축소됨(표 2 참고).

그림 10. 수출입 추이(2010~21)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sat(검색일: 2023. 3. 20).

표 2. 상위 10개 교역대상국 구조(2011, 2021)

(단위: %)

순위	수출		수입	
	2011	2021	2011	2021
1	태국 (44.4)	태국 (34.7)	태국 (61.1)	태국 (46.5)
2	호주 (24.9)	중국 (31.7)	중국 (16.7)	중국 (22.7)
3	베트남 (10.3)	베트남 (11.9)	베트남 (10.1)	베트남 (7.8)
4	중국 (5.5)	호주 (5.9)	한국 (2.1)	스위스 (4.7)
5	일본 (2.6)	캄보디아 (2.1)	스위스 (2.1)	미국 (4.5)
6	영국 (2.0)	스위스 (1.9)	프랑스 (1.7)	일본 (3.0)
7	독일 (1.8)	홍콩 (1.6)	일본 (1.7)	호주 (1.7)
8	미국 (1.8)	인도 (1.4)	러시아 (1.5)	싱가포르 (1.1)
9	이탈리아 (1.1)	일본 (1.3)	미국 (0.5)	한국 (1.1)
10	네덜란드 (1.1)	독일 (1.3)	독일 (0.4)	인도 (0.7)

주: 괄호 안은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K-sat(검색일: 2023. 3. 20).

■ 최근 라오스의 주요 수출품은 광물(금속성 광물과 비철금속)에서 전류(electric current)와 금, 금속성 광물 등으로 변화하였고 수입품은 석유 및 제품, 주행차량, 전기기계장치 등이 주류를 이룸.

- 주요 수출 품목은 전력과 광물(금, 구리, 보크사이트 중심)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설비 등의 자본재와 소비재가 대부분을 차지함.
- 특히 메콩강과 지류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전류 수출이 2010년대 들어 급증해 최근에는 최대 수출 품목으로 부상한 것이 주목되는데, 최근 4개의 수력발전소 신설(400MW)과 동남아 최대급 풍력발전소(600MW) 건설 등으로 라오스의 전류 수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표 3.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 변화 추이(2015, 2021)

(단위: %)

〈 수출 〉				〈 수입 〉			
2015		2021		2015		2021	
품목(코드)	비중(%)	품목(코드)	비중(%)	품목(코드)	비중(%)	품목(코드)	비중(%)
금속성 광물(28)	21.6	전류(35)	27.2	석유 및 제품(33)	17.4	석유 및 제품(33)	11.8
비철금속(68)	18.1	금(97, 금광 제외)	10.6	통신·녹음기기(76)	10.2	도로주행 차량(78)	9.9
통신·녹음기기(76)	9.6	금속성 광물(28)	10.5	도로주행 차량(78)	9.8	전기기계장치(77)	5.4
음료(11)	6.2	채소 및 과일(05)	10.0	특수산업용기계(72)	7.8	금(97, 금광 제외)	4.6
의복 및 부속품(84)	5.7	종이 및 판지(64)	8.8	전기기계장치(77)	6.8	산 동물(00)	4.4

무기화학물(52)	5.3	펄프 및 폐지(25)	4.9	철 및 강(67)	6.6	특수산업용기계(72)	4.4
금(97, 금광 제외)	5.1	생고무(23)	4.7	금속제품(69)	5.6	음료(11)	4.3
채소 및 과일(05)	4.8	의복 및 부속품(84)	3.2	비금속광물(66)	4.4	펄프 및 폐지(25)	4.1
곡식류(04)	3.0	비금속광물(66)	2.6	산업용 기계(74)	4.2	섬유사와 직물(65)	3.8
코르크 및 나무(24)	2.8	비료(56)	2.5	섬유사와 직물(65)	3.0	통신·녹음기기(76)	3.3

주: SITC Rev. 4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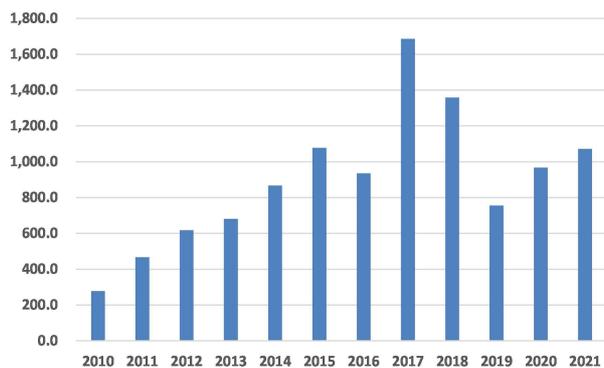
자료: Wts 토대로 작성, 재인용: 장재원(2023), p. 22.

2) 외국인투자(FDI)

■ 꾸준히 증가하던 FDI는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투자가 활발한 것이 특징임.

- 라오스에 대한 FDI(투자 기준)는 2017년 16억 8,630만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대폭 감소하였다가 2020년부터 다시 활발해짐.
- 2021년 기준(허가 기준)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태국, 베트남의 투자가 라오스에 대한 전체 투자의 93.7%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2011년 77.7%)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태국의 투자 증가세가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11. 라오스 FDI 추이(2010~21, 투자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IC(검색일: 2023. 3. 31).

표 4. 라오스 상위 10위 투자국 비교(2011, 2021, 허가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1		2021		누계(2000~2021)			
		금액	비중	국가명	금액	비중	국가명	금액	비중
1	중국	614.4	47.4	중국	1,254.2	66.3	중국	13,957	48.5
2	베트남	226.7	17.5	태국	341.2	18.0	태국	4,916	17.1
3	태국	165.6	12.8	베트남	177.0	9.4	베트남	4,366	15.2
4	한국	79.6	6.1	캄보디아	110.0	5.8	프랑스	927	3.2
5	호주	61.0	4.7	한국	6.2	0.3	한국	736	2.6
6	미국	38.4	3.0	캐나다	1.4	0.1	말레이시아	688	2.4
7	앙골라	37.5	2.9	러시아	1.1	0.1	홍콩	521	1.8
8	일본	15.2	1.2	미국	0.1	0.0	일본	443	1.5
9	홍콩	11.9	0.9	-	-	-	네덜란드	399	1.4
10	프랑스	6.7	0.5	-	-	-	싱가포르	358	1.2
전체 합계			100.0			100.0		28,793	100.0

자료: CEIC(검색일: 2023. 3. 31).

■ 최근 12년간(2010~21) 라오스에 대한 FDI(허가 기준)는 총 205억 4,000만 달러에 달한 가운데 전력 분야(전체의 39.3%), 광업(26.7%), 농업(13.9%), 서비스업(11.2%) 등의 순으로 많이 투자되었고 중점 투자 분야도 변화됨(표 5 참고).

- 전반기인 2010~15년에는 광업(36.4%)에 가장 많이 투자된 가운데 전력 분야(23.3%), 농업(16.7%), 수공업(7.2%) 등의 순으로 많이 투자되었으나 후반기인 2016~21년에는 전력이 전체의 절반가량인 49.3%를 차지한

가운데 광업(20.6%), 서비스업(14.6%), 농업(12.2%) 등에도 많이 투자되어 주요 투자 분야의 변화가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음.

- 제조업을 의미하는 수공업, 봉제, 목제 등은 누계 기준으로 전체의 3.4%에 불과함.

표 5. 라오스 분야별 FDI 구조 추이(2016~21, 허가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분야별	2010~15		2016~21		누계(201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7,928	100.0	12,616	100.0	20,544	100.0
전력	1,844	23.3	6,224	49.3	8,068	39.3
광업	2,878	36.4	2,598	20.6	5,476	26.7
농업	1,320	16.7	1,536	12.2	2,856	13.9
서비스업	456	5.8	1,847	14.6	2,303	11.2
관광업(호텔 및 레스토랑)	170	2.2	152	1.2	322	1.6
금융업	203	2.6	101	0.8	304	1.5
수공업	572	7.2	114	0.9	686	3.3
공중 보건	49	0.6	20	0.2	69	0.3
교육업	5	0.1	5	0.0	10	0.0
자문업(Consultancy)	18	0.2	19	0.2	37	0.2
무역업	61	0.8	0.5	0.0	62	0.3
통신업	2	0.0	N/A	N/A	2	0.0
건설업	313	4.0	N/A	N/A	313	1.5
봉제산업	9	0.1	N/A	N/A	9	0.0
목재산업	29	0.4	N/A	N/A	29	0.1

자료: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Lao PDR(검색일: 2023. 4. 17).

3) 외채와 외환보유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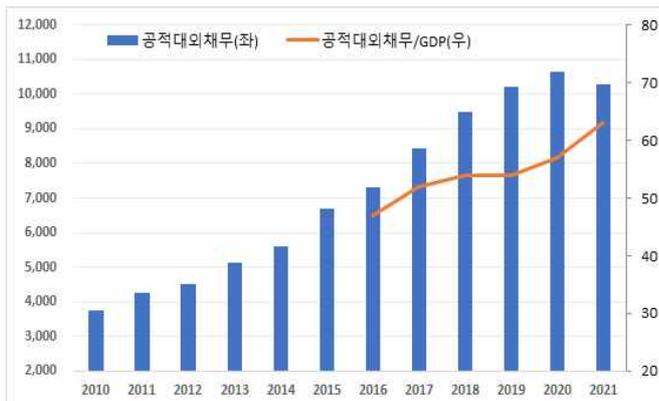
■ 라오스의 공적대외채무(public external debt)는 빠르게 증가해 2020년에는 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공적대외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7%에서 2020년 57%, 2021년 63%로 빠르게 상승함.

- 수력발전소, 고속철도, 도로 등의 인프라 정비를 위한 차관 도입이 확대되는 데 반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공적대외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이후 빠르게 상승함.
- 2021년 기준 라오스의 공적대외채무는 59.7%의 양허성(concessional) 채무와 40.3%의 시장조건(market term)으로 차입한 채무로 구성됨.⁸⁾

8) Ministry of Finance(2022), p. 6.

그림 12. 라오스의 공적대외채무 추이(201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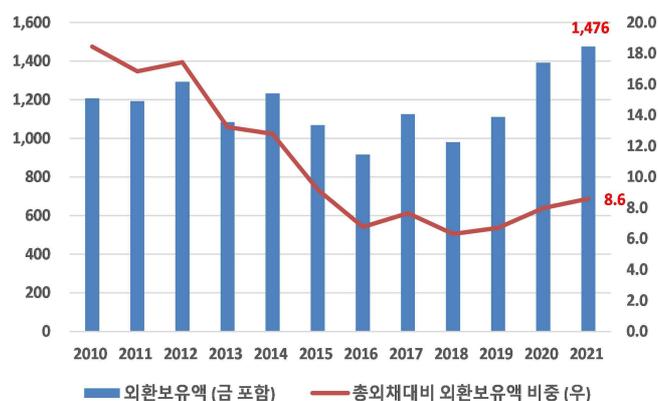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주: 공적보증채무(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중 대외채무 기준.
자료: World Bank(검색일: 2023. 3. 30)와 Ministry of Finance(2022), p. 4.

그림 13. 라오스 외환보유액 추이(2010~21)

(단위: 백만 달러, %)



주: 외환보유액의 경우 금을 포함하는 금액.
자료: CEIC(검색일: 2023. 3. 31).

■ 금을 포함한 외환보유액은 2010년대 중반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총외채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은 빠르게 낮아졌다가 2019년부터 소폭 상승하는 추세임.

- 외환보유액은 주로 FDI, 재외 근로자의 본국 송금, 관광 수입을 통해 가득하고 있으나, 규모가 수입의 2개월 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⁹⁾

3. 경제 불안 배경과 디폴트 가능성 진단

가. 경제 불안의 주요 배경

■ 라오스의 경제 불안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된 것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이들 상황이 더욱 악화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유류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물가가 급등하고 깎화의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한편 공적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 경제 불안으로 직결되고 있음.

1) 라오스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 라오스는 동남아 대륙부의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심해항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함께 철도와 고속도로 등의 물류 인프라가 특히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임.

9) 松井秀幸(2023), p. 14.

- 라오스에서 수출입을 위한 물류는 일부 국경 무역(라·중국, 라·베트남, 라·미얀마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태국의 철도와 항만으로 운송되는 상황이며, 중국과의 물류만이 2021년 12월 개통된 중·라오스 고속철도로 운송되는 수준에 머무름.

■ 라오스의 제조업은 수공업(handicraft)을 제외하고는 거의 발달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소비자 대부분과 자본재를 주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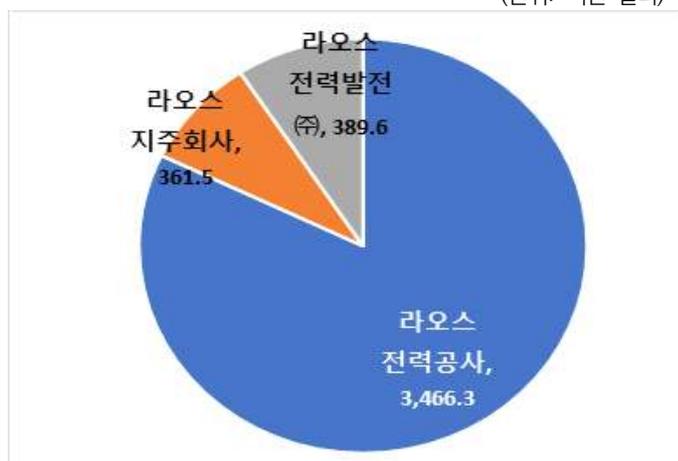
- 라오스에서 제조업은 2021년 기준으로 전체 GDP의 8.38%에 불과할 정도인데, 이는 주변의 비슷한 초기 개도국인 캄보디아의 17.86%, 미얀마의 24.76%, 베트남의 23.80%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수준임.¹⁰⁾
- 라오스는 2021년 기준 전체 수출입의 3/4가량을 국경을 맞대고 있는 3개국(태국, 중국, 베트남)과 거래하고 있고, 특히 주요 교역통로 역할을 하는 태국은 라오스 수출의 34.6%와 수입의 46.5%를 담당함.

■ 광물자원과 인프라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국유기업(SOE)의 경우 정부를 통해 해외에서 필요 자금을 조달할 뿐만 아니라 이들 전대(轉貸) 자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증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2021년 기준으로 라오스 정부가 전대를 통해 국유기업에 대출해준 자금이 42억 1,700만 달러, 정부가 보증한 자금도 20억 2,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그림 13과 14 참고).
- 라오스 항공(Lao Airline)을 제외하면 자금 대부분은 라오스전력공사(EDL)와 라오스전력발전주식회사(EDL-Gen)가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추정

그림 13. 라오스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전대(轉貸)(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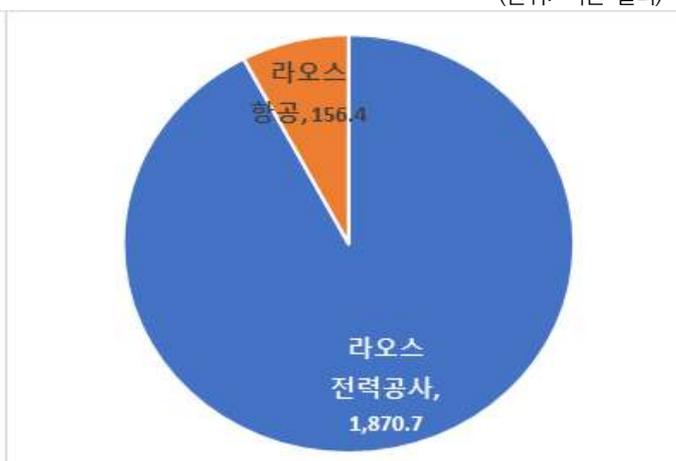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Ministry of Finance(2022), p. 14.

그림 14. 라오스의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보증(2021)

(단위: 백만 달러)



자료: Ministry of Finance(2022), p. 15.

■ 최근 계속되는 무역수지 흑자, FDI 유치, 재외 교포의 본국 송금 등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의 외환보유액(금 포함)은 수입대금의 1.4개월에서 2.3개월(2021년) 사이에 불과할 정도로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됨.

10) 정재완(2023), pp. 14~43.

- 2015년 GDP의 22.3%에 달할 정도로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적자 축소 및 흑자 전환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본원소득수지(primary income account) 적자는 급격히 확대되고 서비스 수지 적자 역시 지속적으로 악화됨.
- 본원소득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은 대외채무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16. 라오스의 경상수지/GDP 추이
(201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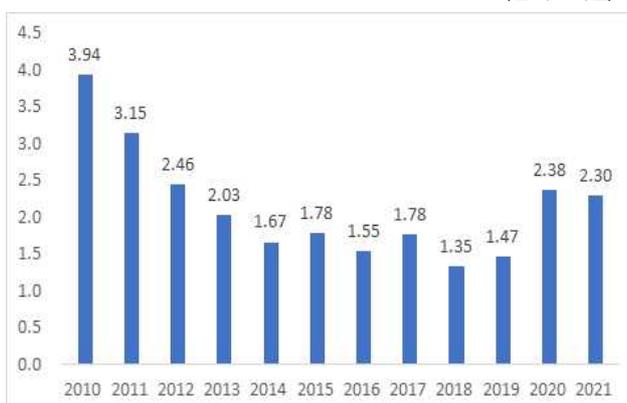
(단위: %)



자료: IMF(2023), p. 161을 토대로 작성.

그림 17. 라오스의 수입대금 대비 외환보유액 추이
(2010~21)

(단위: 개월)



주: 외환보유액의 경우 금을 포함하는 금액.

자료: CEIC(검색일: 2023. 3. 31).

- 외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상업은행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발달하지 않은 라오스가 일반적으로 수출 금액을 태국을 비롯한 인근 국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반해 수입대금은 라오스 현지로부터 송금하는 관행 때문으로 파악됨.
- 라오스 중앙은행에 의하면, 전체 수출액 중 라오스 현지로 유입된 금액은 26.5%에 불과하나 수입대금의 98%가 라오스 현지에서 송금된 것으로 파악됨.¹¹⁾
-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라오스 상업은행을 통한 외화결제 비율은 수입에서는 33%뿐이지만 수출에서는 98%로 많은 차이가 발생함.¹²⁾

■ 인도차이나 전쟁(1964~73) 당시 라오스에 투하된 200만 톤 이상의 폭탄 중 약 30%에 달하는 불발탄이 아직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것도 라오스의 경제와 사회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큰 요인 중 하나로 보임.¹³⁾

- 2017년 기준 전체 불발탄 중 2%만 제거된 가운데 특히 불발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물론 막대한 제거 비용, 국토 개발이나 인프라 개발 지연, 농지 사용 위험 등으로 라오스의 사회와 경제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임.
- 라오스는 현재 전 국토의 30%에 해당하는 지역에 불발탄이 매립되어 있으며, 완전 제거에는 20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¹⁴⁾

11) 김필성(검색일: 2023. 3. 13).

12) 山田健一郎(검색일: 2023. 4. 20).

13) アサダヨウスケ(검색일: 2023. 4. 12).

2)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

■ 라오스는 상당히 이른 2020년 4월경부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봉쇄정책을 추진한 결과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그 결과 경제성장 둔화를 포함한 경제 상황 악화가 가속화됨.

- 특히 국내외 물류 및 공급망 붕괴, 생산 및 소비 둔화, 관광 산업 붕괴, 해외 거주 교포들의 본국 송금 감소 등이 나타났고 이는 경제성장 둔화(2019년 5.46% → 2020년 3.28% → 2021년 3.48%)로 직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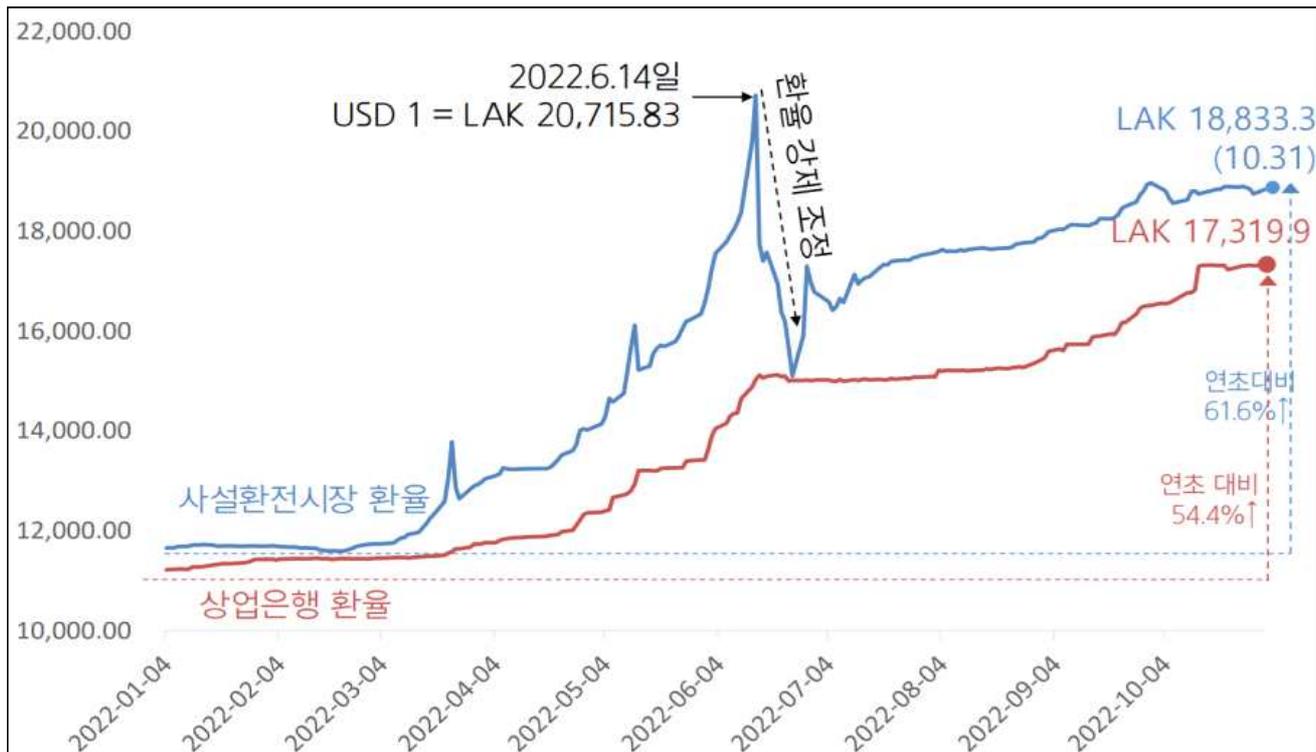
■ 관리변동환율제도 하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절하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3월 이후 미국의 연쇄적인 금리 인상 조치 등을 겪으면서 라오스는 외화 부족 현상이 표면화되었고, 이에 따라 깎화의 대달러 환율은 2021년 10월 이후 급등하였으나 2023년 들어서 다소 안정되는 추세임(그림 7 참고).

- 라오스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온 외환부족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 수입 급감 △인프라 건설에 따른 차관 도입 확대 △수출보다 수입 과정에서의 높은 외화 결제 비율로 인한 외화 유출 증가 △기준환율과 시장환율 간의 괴리 확대 △현지 통화 가치 폭락에 따른 국민의 달러화 소유 열기 확산, 공적 대외 채무 확대 등으로 더욱 확산됨.
- 외환부족현상에 더해 중국의 '부채의 덩(Debt trap)'에 대한 우려 확산과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따른 깎화의 가치 하락 등이 깎화 환율의 급상승을 유도함.
- 이러한 가운데 중앙은행 기준환율과는 별개로 상업은행과 사설환전소 환율(시장환율)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였는데, 특히 2022년 3월 이후 상업은행 환율과 사설환전소 환율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며 정부의 양 환율 간 격차 강제조정(2022년 6월 중순)을 거친 후에 격차가 10% 이내로 유지됨(그림 18 참고).
 - 사설 환전소의 대달러 환율이 2022년 6월 14일에는 2만 킵을 넘어서는 상황도 발생함.
 - 라오스 정부는 환율 급등세가 지속된 2022년 10월 11일 중앙은행 고시를 통해 환율변동 폭을 기준환율 대비 ±1.5%에서 상업은행 ±4.5%와 사설 환전소 ±3.0%로 확대됨.¹⁵⁾
 - 라오스 정부는 또한 깎화의 하락 방지를 위해 2021년 7월 사설 환전소를 상업은행으로 편입시키는 데 이어 2022년 10월 11일 상업은행의 환전 기능 강화와 사설 환전소의 외화 판매를 금지(매입은 가능)하였고, 2023년 1월에는 전국의 사설 환전소를 폐쇄함.

14) 三上輝明(검색일: 2023. 4. 11).

15) World Bank(2022), p. 20.

그림 18. 라오스의 상업은행과 사설환전시장의 환율 추이(2022.1.4~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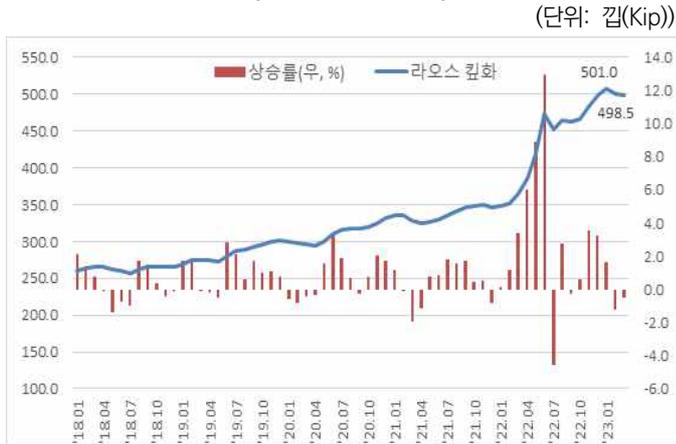
자료: 김필성(검색일: 2023. 4. 18)에서 재인용

■ 라오스의 소비자물가는 국내외 공급망 붕괴로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한 2021년 하반기와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고물가 여파로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졌는데, 여기에는 유류 가격 폭등, 환율 급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급등 등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소비자재와 자본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라오스는 환율 변화에 따른 수입 물가 변동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최대 수출입 대상국인 태국의 바트(Baht)화에 대한 갑작스런 환율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함(그림 19 참고).
- 특히 100% 수입에 의존하는 유류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공급망 붕괴와 환율 급상승에 더해 2022년 초부터 이어진 수입 및 공급물량 부족으로 가격 급등이 지속되었고 이는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효과를 발휘함(그림 20 참고).
 - 일례로 2023년 1월의 소비자물가는 갑작스런 하락과 유류 가격의 상승이 수입 물가와 국내 생산 비용의 급상승을 견인해 전년동기대비 40.3%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항목별로는 교통·수송이 전년동기대비 49.9%, 식음료가 47.1%, 건강·의료가 42.2%, 가구·가정용품이 3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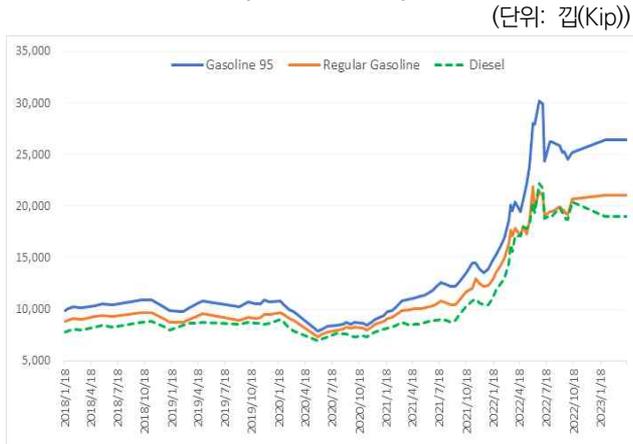
16) 山田健一郎(검색일: 2023. 4. 21).

그림 19. 김화의 태국 바트화에 대한 월평균 환율 추이 (2018.1~2023.3)



자료: CEIC(검색일: 2023. 4. 20).

그림 20. 라오스 유류가격 추이 (2018.1~23.4)



주: 해당 유류가격은 수도 비엔티엔을 기준으로 함.
자료: LAO State Fuel(검색일: 2023. 4. 17).

3) 공적채무 급증과 국가신용등급 하락

■ 라오스는 공적대외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부보증채무를 포함한 공적(PPG: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채무가 빠르게 증가해 우려를 자아내며, 최근에는 대외채무 상환 능력도 의심받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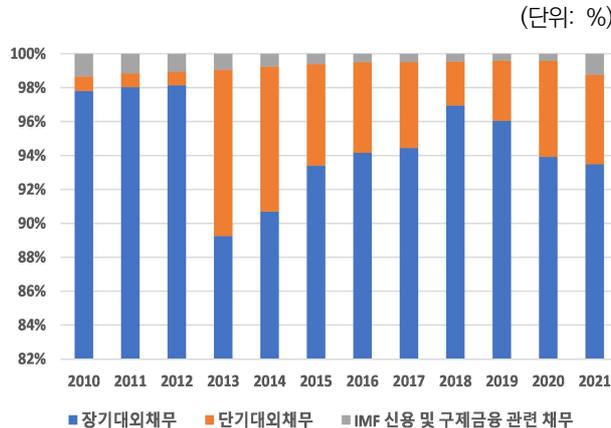
- 인프라 확충을 위한 차관뿐만 아니라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보증채무 역시 빠르게 증가해 이들을 합한 PPG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6.7%에서 2021년 88.0%로 높아졌으며(그림 21 참고), 2022년 말에는 비중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됨.¹⁷⁾
- 2013년 이후 줄어들던 단기대외채무 비중 역시 2019년부터 다시 높아지는 추세임(그림 22 참고).

그림 21. 라오스의 공적(PPG) 채무 추이(2016~21)



자료: Ministry of Finance(2021), p. 4와 Ministry of Finance(2022), p. 4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22. 라오스의 공적대외채무 기간별 구조 변화(2010~21)



자료: World Bank International Debt Statistics(검색일: 2023. 3. 31).

17) 松井秀幸(2023), p. 7.

- 외환이 부족한 가운데 공적대외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규모도 늘어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상환하지 못한 원리금이 6억 3,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그림 23 참고).
- o 라오스는 2019년부터 중국 채무에 대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¹⁸⁾

그림 23. 라오스의 공적대외채무 상환 추이 및 추정
(2015~26)



자료: Ministry of Finance(2021), pp. 9-11과 Ministry of Finance(2022), pp. 9-12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24. 라오스의 대외공적채무 차입 구조
(2021년, 누적)



자료: Ministry of Finance(2022), p. 6을 토대로 저자 작성.

■ 라오스의 대외공적채무는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조달한 가운데 최근에는 양허성(concessional)보다는 시장 조건 (market terms)으로 조달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원리금 상환 부담도 가중되고 있음.

- 2021년 누적 기준 라오스의 공적대외채무는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의 48.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태국 (3.8%), 한국(2.5%) 순으로 많으며 기관별로는 ADB(8.7%)와 IDA(6.9%)로부터 많이 조달함(그림 24 참고).
- 중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차관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전체 공적대외채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1.8%, 2019년 46.1%, 2021년 48.8%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¹⁹⁾
 - o 라오스는 대외채무뿐만 아니라 수출입, 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에서 중국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추진 이후 그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짐.
- 라오스의 공적대외채무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시장 조건으로 조달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2015년 33.3% → 2018년 39.8% → 2021년 40.2%)되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시장 조건으로 조달하는 비중은 더 빠르게 증가(2015년 41.8% → 2018년 46.7% → 2021년 48.8%)하는 추세임.²⁰⁾

■ 주요 국가신용평가사는 라오스의 경제 불안이 심화되고 디폴트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라오스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거나 등급 부여를 철회하는 상황임.

- 특히 무디스(Moody's)는 2020년 8월부터 라오스의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단계(높은 투자위험으로 투기 등

18) 松井秀幸(2023), p. 10.

19) Ministry of Finance(2022), p. 6을 토대로 저자 계산.

20) Ministry of Finance(2022), p. 6을 토대로 저자 계산.

급 높음)인 Caa2로 분류한 데 이어 2022년 6월에는 다시 한 단계 낮은 Caa3로 강등시켰고 같은 해 10월에는 등급 부여 자체를 철회함(표 6 참고).

표 6. 라오스 국가신용등급 변화 추이(2020.1~2023.4)

일자	피치(Fitch Ratings)		무디스(Moody's)		TRIS	
	신용등급	전망	신용등급	전망	신용등급	전망
2020. 1			B3	긍정적		
2	B-	안정적				
5	B-	부정적			BBB	부정적
6			B3	관찰대상		
8			Caa2	부정적		
9	CCC	N/A				
2021. 5					BBB-	부정적
2022. 5					BBB-	안정적
6			Caa3	안정적		
8	CCC-	N/A				
10			등급 부여 철회			

주: TRIS(Thai Rating and Information Services)는 1993년 설립된 태국의 신용평가기관

자료: World Bank(2022), p. 16을 토대로 수정

나. 정부의 대응

■ 라오스 정부는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특별 소비세 감면, 유류 수입을 위한 자금 지원, 공공지출 축소를 포함한 긴축정책 등을 실시함.

- 물가 안정, 세계적인 고금리 추세 대응과 환율 방어 등을 목적으로 2022년 5월(0.1%p)과 10월(3.4%p), 2023년 2월(1.0%p)에 금리를 인상함(그림 6 참고).
- 라오스 정부는 또 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된 유류 수입 원활화를 위해 2022년 5월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감면한 데 이어 2022년 8월까지 2억 달러가량의 자금(credit line)도 지원함.²¹⁾
- 중앙은행은 유동성 흡수를 위해 2022년 6월 5조 킵(약 3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중앙은행 채권을 발행한 데 이어 2023년 1월에도 1조 킵(약 6,100만 달러) 규모의 중앙은행 채권을 발행함.²²⁾

■ 라오스 정부는 환율 안정과 외환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외환통제 강화, 킵화 저축채권(saving bond) 발행, 환율변동 폭 확대 등을 추진하였고 2014년 이후 8년 만에 외환관리법도 개정함.

- 정부는 1일 외환거래량 제한, 연료를 비롯한 주요 품목의 우선 수입업자 선정, 온라인 결제 은행 지정, 기업의 사설환전소 이용 제한 등을 통해 외환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킵화의 유동성 축소를 통한 통화 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2022년 6월 5조 킵(약 3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저축채권(6개월 만기, 연 20% 금리)을 발행함.²³⁾

21) World Bank(2022), p. 7.

22) 松井秀幸(2023), p. 13.

23) World Bank(2022), p. 20.

- 2021년 7월 사설환전소를 상업은행에 편입시킨 데 이어 2023년 1월에는 모든 사설환전소를 폐쇄하였으며, 환율변동 폭 역시 2022년 10월 기준의 $\pm 1.5\%$ 에서 $\pm 4.5\%$ (상업은행 기준)로 확대함.
- 특히 라오스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수출대금의 유입 확대, 중앙은행의 외환관리 및 통제 강화, 대외채무 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관리법을 개정하고 시행함.
 - 외환관리법 개정 주요 내용: ① 무역 거래 시 상업은행 내 전용계좌 활용 ② 원조 자금 및 재외 근로자의 본국 송금 등에 대한 통제 강화 ③ 외국인투자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④ 해외투자 모니터링 강화 ⑤ 주식투자 관리 강화 ⑥ 국제차관 및 대출 관리 강화 ⑦ 대외부채에 대한 관리 강화 ⑧ 비거주자 계좌 정보와 자국 거주자의 해외 계좌에 대한 관리 강화 ⑨ 외화금융서비스에 대한 관리 강화 ⑩ 금 거래 서비스 관리·감독 등²⁴⁾

■ 라오스는 공적채무 축소 및 외화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공적대외채무의 조달선 변화와 양자채무 재조정 협상을 추진함.

- 2020년 이후 공적대외채무의 조달선을 상업은행 차관 중심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국내조달 확대를 추진함.
- 중국과 채무상환 일정을 재조정하고 중국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과는 통화스와프 협정도 체결함.

■ 라오스는 공적채무 급증의 원인 중 하나인 국유기업(SOE)의 과도한 차입을 관리하고 경영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분매각, 구조조정, 민영화, 적자기업 청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SOE 개혁을 본격 추진함.

- 구조조정이 필요한 3개 SOE(전력공사, 석유공사, 전력발전공사)에 대해서는 국유기업개혁위원회 발족(2022년 4월)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고 나머지 175개 중 31개 SOE에 대해서도 '5개년(2021~2025)' 혁신계획을 통해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표 7 참고).²⁵⁾
 - 라오스 정부는 이들 SOE에 대한 정부의 전대(轉貸) 자금 및 보증채무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SOE의 외화수급 불일치(깎화 수입과 외화 변제)로 인한 깎화 가치 절하 압력 완화, 더 나아가 만연하는 부정부패 척결 등의 다 목적을 위해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함.
 - 이중 라오스개발은행과 농업진흥은행은 2021년 개혁을 완료했고 라오스 우정공사의 지분 51%도 매각한 것으로 알려짐.²⁶⁾

표 7. 라오스의 주요 국유기업 효율화 계획

구분	효율화 유형	대상기업
1	필수 공공서비스(전력) 등: 정부 보유지분 유지, 대대적 효율화 및 혁신 추진	라오스 전력공사(EDL), 라오스 전력발전공사(EDL-Gen)
2	항공, 농업, 수출입 등 주요 업종: 지분 일부 매각 (정부 지분 51% 이상 유지)	라오항공, 농업·산업개발공사, 라오스 수출입공사, 라오스 석유공사
3	적자 국유기업: 대다수 지분 매각 (정부 지분 30% 이상 유지)	라오스 개발은행(LDB), 라오스 농업진흥은행(LAPB)
4	적자 지속 국유기업: 정부 보유지분 전량 매각	라오스 우정공사, 라오스 물류공사, MSIG 보험
5	경영 개선 여지없는 국유기업: 기업 청산	DAFI 그룹, 라오스 면화공사

자료: 장경(검색일: 2023. 4. 25).

24) 김필성(검색일: 2023. 4. 18).

25) 장경(검색일: 2023. 4. 25).

26) World Bank(2022), p. 14.

다. 디폴트 가능성 진단과 과제

■ 라오스 경제의 자체적인 구조적 취약성에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라는 특수한 환경이 가미되었다는 점에서 경제 불안은 점차 개선되지만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산업활동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데다가 2021년부터 추진한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개혁을 통해 경제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소비자물가(특히 유류 가격), 깎화 환율, 대외공적채무 등이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경제 불안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임.
 - ADB는 2023년 라오스 경제의 4.0% 성장을 제시하면서 재정 건실화와 경상수지 안정세도 전망함.²⁷⁾
- 다만 이들 요인은 라오스 정부의 본격적인 개혁이 필요함과 동시에 국내 요인보다는 글로벌 고물가와 고금리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경제안정에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2022년 23.0%를 기록한 소비자물가는 2023년 16.0%를 기록한 후 2024년에 가서야 5.0%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²⁸⁾

■ 공적대외채무의 증가와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디폴트 가능성은 라오스 정부의 개혁 및 채무 재협상 추진과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통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아주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공적(PPG)채무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공적채무의 71.7%를 차지하고 있는 공적대외채무에 대한 양자 간 재조정 협상을 2020년 이후 추진하고 있고 대외채무의 절반가량을 보유한 중국을 포함한 주요 파트너 국가들도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라오스는 IMF와의 협상 및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 국내 공적채무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도 2021년 이후 본격 추진하고 있음.
- 게다가 라오스는 공산당 1당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정부 통제가 수월하다는 점도 디폴트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음.
 - 단적인 예로 라오스 정부는 중앙은행 고시 환율과 시장환율 간의 괴리가 크게 발생하자 사설 환전소를 통제한 데 이어 2023년 1월 전격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내림.

■ 국내 주요 생산 활동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관광업과 수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는 가정하에서 단기적으로 라오스의 경제 불확실성 극복, 특히 디폴트 가능성을 확실하게 낮추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 통화가치 안정, 채무 재조정 성공 등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라오스의 국내 생산 및 소비의 본격 회복을 위해서는 유류 공급 원활화와 이를 통한 소비자물가의 안정을 우선 달성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의 실질 구매력 감소를 방지하는 지름길이기도 함.
- 2022년 10월 발효된 외환관리법의 안정적인 운용과 문제점 보완을 통해 부족한 외화를 보충(특히 수출대금의 국내 유입 확대)하고 이를 통해 깎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함.

27) ADB(2023), p. 207.

28) ADB(2023), p. 207.

- 디폴트 가능성을 촉발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공적대외채무에 대한 재조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공적채무 감축을 위한 국유기업 개혁도 지속하는 것도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라오스가 누적되고 있는 경제 불안정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i) 교육, 보건, 사회적 보호 등에 대한 지출을 지속하기 위한 공공 수입 증가 ii) 지출 배분 및 효율성 증진 iii) 공적채무 관리 강화 iv) 금융 부문 안정성 강화 v) 투자와 수출 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에서 본격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²⁹⁾

- 세부적으로는 ① 세제 인센티브와 면세 축소 등을 위한 투자촉진법 개정 ② VAT 10%로 회복 및 면제 축소 ③ 사회 분야에 대한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 ④ PPP 거버넌스 강화 ⑤ 공공 부채 구조조정 추진 ⑥ 은행 모니터링 강화 및 비상계획(emergency arrangement) 준비 ⑦ 비즈니스 등록 프로세스 개선 및 인허가 제도 구축 ⑧ e-무역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함.³⁰⁾

4. 라오스 경제 전망과 중점 개발 방향

가. 경제 전망

■ 2023년 라오스 경제는 불확실성으로 위축되었던 2022년보다 다소 높은 4.0%의 성장이 예상되며, 소비자물가는 15.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양국 간 경제교류 확대, 중-라오스 고속철도를 통한 국제여행객 수송 시작(2023년 4월)과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 활발해진 전류 수출, 정부의 수출진흥책 추진 등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세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표 8. 라오스의 중기 거시경제지표 전망(2023~28년)

구분	단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GDP	십억 달러	15.52	16.05	16.83	17.86	19.09	20.43
GDP 성장률	%	4.00 ¹⁾	4.00 ¹⁾	4.60	5.30	5.21	4.50 ¹⁾
1인당 GDP	달러	2,033	2,075	2,147	2,249	2,375	2,512
소비자물가상승률	%	15.10 ¹⁾	3.50 ¹⁾	4.30	4.00	4.77	3.00 ¹⁾
수출	십억 달러	7.32	7.90	8.56	9.33	10.14	11.02

29) World Bank(2022), p. 28.

30) World Bank(2022), pp. 28~29.

수입	십억 달러	9.95	10.47	11.23	12.26	13.47	14.54
환율(평균)	킵/달러	15,176	16,099	16,815	17,389	17,869	18,320
인구	백만 명	7.63	7.74	7.84	7.94	8.04	8.13

주: 1)은 IMF 데이터.

자료: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검색일: 2023. 4. 27)와 IMF(2023), pp. 146-151.

■ 반면 여전히 높은 물가와 부족한 외화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높은 인플레이션은 소비와 투자를 저해할 수 있고 외화부족은 대외공적채무의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없기 때문임.

■ 중기적으로 라오스 경제는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지 않는 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연평균 6.8%보다는 낮은 5%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소비자물가도 당분간 4%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음.

-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와 IMF는 라오스 경제의 중기 성장률을 4.5~5.3%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라오스 정부의 불확실성 제거 노력이 지속되고 물가와 환율이 안정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함(표 8 참고).

나. 중점 개발 방향

■ 라오스는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한 상위중소득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개년 중장기 개발계획과 5개년 중기 개발계획 등을 통해 사회 및 경제 분야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표 9 참고).

- 2016년에 '비전 2030(Vision 2030)'을 통해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따른 상위중소득국 진입'과 '1인당 소득 부문 2015년 대비 4배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 장기 전략을 수립함.
 - 2015년 기준 라오스 1인당 GNI는 1,980달러이며, 2021년 기준 2,520달러를 기록함.³¹⁾
-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10 Year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2016~25)'을 통해 7개 중장기 과제를 제시함.³²⁾
 -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은 2020년까지 LDC 지위 졸업 및 2025년까지 LDC 졸업에 따른 경제 전환 등을 고려하여, 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성장, ② SDGs 달성을 통한 2020년까지 최저개발국 졸업, ③ 인적 자원 개발, ④ 천연자원 보호 및 관리에 따른 지속가능한 녹색 환경 조성, ⑤ 효과적인 법치 체제에 따른 정부의 사회 관리, ⑥ 역내 및 국제적 통합 달성, ⑦ 산업화 및 근대화 등을 강조함.
- 또한 보다 세부적으로 5개년 단위의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이하 NSEDP)'을 발표해 최저개발도상국 졸업 이행 방안 및 新통상 분야인 기후변화와 디지털 분야 개발을 강조함.³³⁾

31) KOSIS 홈페이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AS017&conn_path=I2(검색일: 2023. 4. 23).

32)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Lao PDR, 'Vision2030 and 10 Year SocioEconomic Dev Strategy 2016_2025 LAO,'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4. 23).

- 가장 최근 발표한 NSEDP는 제9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으로 2021~25년까지의 라오스의 중기 전략을 포함하고 있음.

표 9. 라오스의 중장기 사회경제개발계획 주요 내용

구분	개발계획 명	주요 내용
장기	비전 2030 (2016~30)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해 상위중소득국 진입 및 1인당 소득 2015년 대비 4배 증가
		• 산업화 및 근대화를 위한 산업기반과 인프라 강화
		•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달성
		• 강력한 정치 및 행정 시스템 유지
		•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한 효과적인 법체제 확립
		•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
중장기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 (2016~25)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성장
		• SDGs 이행을 통해 2020년까지 최저개발국 졸업
		• 인적자원 개발
		• 천연자원 보호 및 관리에 따른 지속가능한 녹색 환경
		• 효과적인 법치 체제에 따른 정부의 사회 관리
		• 역내 및 국제적 통합 달성
중기	제9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2021-25)	•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양질의 성장
		• 인적자원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과학기술 확산 및 노동 생산성 향상
		• 생활 수준 향상, 빈곤 감소 및 농촌개발
		•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 재난 및 기후변화 대응 방안 확립
		• 인터넷 통합, 금융, 교통, 통신 인프라 등 연결성 강화
		• 법치주의 및 국민 통합, 공공행정 효율 증대

자료: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Lao PDR 온라인 자료; 한국무역협회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3. 4. 21) 등을 통해 저자 정리.

■ 라오스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 통합 투자촉진법(Law on Investment Promotion)도 개정함(표 10 참고).

- 라오스는 2004년부터 ‘내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구분하여 투자 부문을 관리해왔으나, 더욱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2009년에 ‘통합 투자촉진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16년 개정안을 발표해 201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함.³⁴⁾
- 2009년 투자촉진법과 비교하여 2016년의 개정안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자본금 납입 규정이 대폭 완화되어 당초 대기업 혹은 대규모 자금 역력이 있는 기업 중심에서 중소 규모의 외국기업도 투자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 것임.³⁵⁾

33)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Lao PDR, ‘Vision2030 and 10 Year SocioEconomic Dev Strategy 2016_2025 LAO,’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4. 23).

34) 법무부(2016), ‘투자·비즈니스 가이드 핸드북: 라오스편,’ pp. 35~38(검색일: 2023. 4. 24).

35)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Lao PDR, ‘Vision2030 and 10 Year SocioEconomic Dev Strategy 2016_2025 LAO,’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4. 23).

- 특히 정부는 외국인 최소자본금 규정 철폐, 투자가치에 따른 최소 납입액(%) 차등화 등 對라오스 투자의 높은 진입장벽 중 하나였던 자본금 납입 부문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함.

표 10. 라오스 투자촉진법 주요 개정 내용

구분	2009년 투자촉진법	2016년 투자촉진법(개정)
외국인 최소자본금 규정	10억 킵(12만 5,000달러)	해당 사항 없음.
초기 자본 납입	등록자본의 최소 30% 이상을 투자 허가받은 90일 이내 납입	등록자본의 40~60%를 투자 허가받은 90일 이내 납입
잔여 자본 납입	법인 설립 후 1년 이내	사업자 등록증 발급 1년 이내
양허사업 자본 납입	투자 금액과 관계없이 등록자본의 20%를 투자 허가를 받은 90일 이내 납입	투자가치에 따라 최소 납입액(%) 차등 - 투자가치 1,000만 달러 미만: 3% - 투자가치 1,000만 달러 이상 ~ 5억 달러 미만: 2% - 투자가치 5억 달러 이상 ~ 10억 달러 미만: 1.5% - 투자가치 10억 달러 이상: 1%

자료: 민혁기 외(2018), '한-CLMV 양자 간 협력강화를 위한 전략 연구'; 법무부(2016) 투자-비즈니스 가이드 핸드북: 라오스편; National Assembly Lao PDR(2016), 'LAW ON INVESTMENT PROMOTION(Amendment)'; KOTRA(2017), '라오스 개정 투자촉진법 어떻게 변했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4. 21)를 토대로 저자 정리.

- 또한 2016년 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우선 투자 촉진 분야 9개를 자세히 명시하고 있음.
- 라오스 정부가 장려하는 외국인 투자 촉진 산업은 ▲기술 및 R&D 분야 ▲청정 농업 및 산림 개발 ▲농업 및 수공업 가공업 ▲관광 개발업 ▲인적자원개발 ▲보건 분야 ▲공공 인프라 건설 ▲미소금융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 등임.
- 다만 해당 분야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5,000달러 투자, 1년 이상 라오스 국적 숙련노동자 30명이나 50명 이상 고용 유지 등이 선행되어야 함.

표 11. 라오스 투자촉진법에 따른 주요 산업

구분	투자 촉진 산업
1	고급 및 현대 기술, 과학 연구, R&D, 친환경적 기술 적용, 천연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 등이 가능한 산업
2	청정 농업 및 산림 개발, 환경 및 생물 다양성 보호, 지역 개발 촉진 및 빈곤 경감 활동 등
3	친환경적 농업 분야 가공업, 국가 전통 수공업 가공업 등
4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문화·역사적 관광 개발 산업 등
5	인적자원 개발, 노동 기술 개발, 직업 훈련 기관 및 센터 설립, 교육 및 스포츠 장비 생산 등
6	병원, 제약 및 의학 장비 공장 건설, 전통 의약품 생산 및 해당 분야 치료산업
7	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공공 인프라 및 주거시설 개발, 농업 및 산업 생산을 위한 인프라 개발, 운송 서비스 등
8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 및 빈곤 경감에 초점을 둔 금융 및 미소금융 기관
9	국내 및 세계적인 상품과 브랜드 홍보를 위한 현대적인 전시회나 박람회

자료: 민혁기 외(2018), '한-CLMV 양자 간 협력강화를 위한 전략 연구'; 법무부(2016), '투자-비즈니스 가이드 핸드북: 라오스편'; National Assembly Lao PDR(2016), 'LAW ON INVESTMENT PROMOTION(Amendment)' (검색일: 2023. 4. 21)토대로 저자 정리.

■ 라오스는 2000년대 들어 내륙국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철도와 항만은 물론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과 경제특구

(SEZ) 개발을 본격 추진함.

- 라오스는 내륙국(Land-locked Country)이라는 단점을 물류연계국(Land-linked Country)으로 전환시키고자 철도망을 구축하는 한편 이웃 국가의 심해항만 운영권 확보를 추진함.
 - o 철도가 부재했던 라오스는 2021년 12월 라오스-중국 고속철도를 개통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 비엔티안과 남부지방을 연결하는 철도 부설은 물론 주변국 베트남 및 태국과의 연결철도 건설을 추진함.³⁶⁾
 - o 특히 라오스는 중장기적으로 베트남의 심해항구(붕앙, 동하)에 대한 공동 개발을 추진해 태평양으로의 물류망을 구축하고자 하며, 첫 단계로 수도 비엔티안과 베트남 붕앙(Vung Ang)항까지의 철도를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임.³⁷⁾
- 라오스는 또한 ADB와 일본이 주도하는 GMS 프로그램의 핵심사업인 경제회랑, 특히 남북경제회랑(SNEC)과 동서경제회랑(EWEC)에 본격 참여해 주변국과의 연계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산업 구조 다변화를 위해 경제특구 개발을 2011년 이후 본격 추진하여 2023년 4월 기준 21개를 개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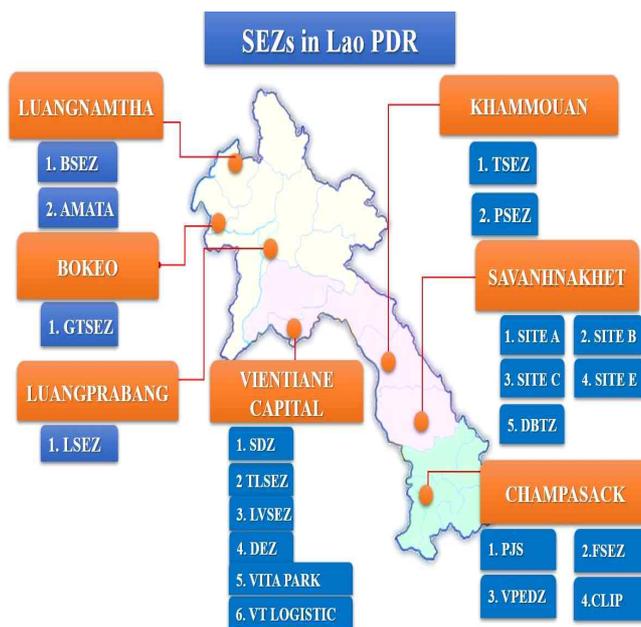
그림 25. 라오스의 철도 부설 현황 및 계획(2023년 4월 기준)



주: Kunming-Vientiane 고속철도는 2021년 12월 개통했으며, Nong Khai-Bangkok 구간은 태국 철도. 검은 점선 구간(Vientiane-Thakhek-Vung An)은 2023년 3월 건설 공사가 시작 예정인 철도

자료: Chris Devonshire-Ellis(검색일: 2023. 3. 14)를 토대로 저자 보완

그림 26. 라오스의 경제특구(SEZ) 개발 현황



자료: Special Economic Zone Promotion and Management Office 홈페이지 (검색일: 2023. 4. 27).

36) 라오스의 철도망 구상과는 별개로 중국이 중-라오스 철도의 연장선으로 라오스 비엔티안과 태국 방콕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37) 라오스는 2018년 2월 베트남 정부와 붕앙항 공동 개발 협정을 체결하였고 비엔티안-붕앙 간 철도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한국이 수행한 바 있음. 자세한 내용은 장경(2021), pp. 18~19 참고 바람.

5. 한·라오스 경험 현황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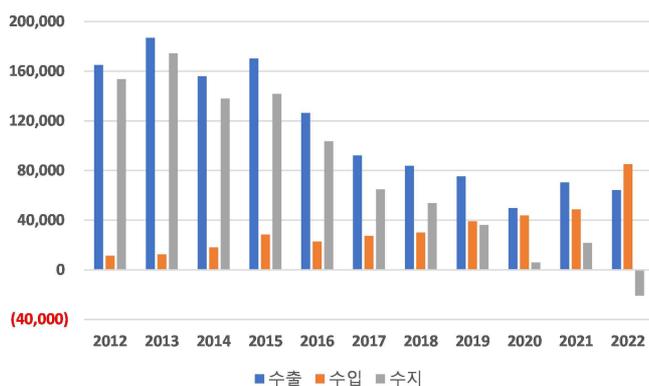
가. 양국 간 경험 현황

■ 한국의 對라오스 교역액은 2013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수출 부문에서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수입 부문은 점차 증가함.

- 2022년 기준 한국의 對라오스 교역액은 1억 4,956만 달러(수출 6,432만 달러, 수입 8,524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특히 수입의 경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 라오스의 경우 2012년 기준 한국의 116위 교역국이었으며, 2022년도 비슷한 수준인 118위를 기록해 한국과의 교역 수준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됨.
 - 2022년 기준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액은 2,075억 달러(수출 1,249억 달러, 수입 825억 달러)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으나, 그중 한-라오스 교역액은 한-아세안 전체 교역액의 약 0.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미미함.³⁸⁾

그림 27. 한국의 對라오스 수출입 추이(2012~22)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sat(검색일: 2023. 3. 31).

표 12. 한국의 주요 교역국 순위(2012, 2022)

(단위: 백만 달러, 개)

2012			2022		
순위	국가명	교역액	순위	국가명	교역액
총계			총계		
1	중국	215,108	1	중국	310,365
2	일본	103,159	2	미국	191,551
3	미국	101,866	3	베트남	87,689
4	사우디아라비아	48,819	4	일본	85,318
5	홍콩	34,664	5	호주	63,682
6	싱가포르	32,564	6	대만	54,473
7	호주	32,238	7	사우디아라비아	46,505
8	인도네시아	29,631	8	독일	33,683
9	대만	28,827	9	싱가포르	30,553
10	카타르	26,235	10	홍콩	29,529
...
116	라오스	176	118	라오스	149

자료: 한국무역협회 K-sat(검색일: 2023. 4. 17).

■ 한국의 對라오스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자동차 완성품 및 부품품 등의 비중이 다소 줄어든 가운데 최근 파스타 면류와 화장품 등 신규 품목도 수출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전통적 상위 품목인 목탄 외에도 정밀화학 제품이 늘어난 것이 특징임.

- 수출의 경우 2012년 기준 최대 품목은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차량, 화물자동차, 차량용 부품품, 타이어 등으

38) 이재희(2023),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 및 무역수지 사상 최대 기록」, 지역연구 제1호 동향세미나, p. 8(검색일: 2023. 4. 21).

로 자동차 관련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약 92%를 차지했으나, 2022년 기준 해당 분야 품목 비중이 줄어들고 파스타 등 면류와 메이크업 용품 등 신규 품목이 상위를 차지함.

- 수입의 경우 2012년 기준 최대 품목은 주로 목탄 및 너트 탄, 목재, 남성용 의류, 커피 등이었으나, 2022년 기준으로는 정밀화학제품과 산업용전자제품 등의 수입이 늘어나 수입품목이 다소 다변화됨.

표 13. 한국의 對라오스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2012, 2022)

(단위: 천 달러, %)

순 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명	2012	2022	코드	품목명	2012	2022
		총계	165,040	64,325		총계	11,346	85,237
1	8704	화물자동차	49,374 (29.9)	22,403 (34.8)	4402	목탄, 너트 탄 등	3,170 (27.9)	34,707 (40.7)
2	8429	자주식 불도저, 앵글도저, 그레이더 등	2,572 (1.6)	7,399 (11.5)	3104	칼륨비료	-	28,188 (33.1)
3	8703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차량	73,566 (44.6)	4,625 (7.2)	9025	측정기, 온도계, 고온계 등	-	9,311 (10.9)
4	8708	차량 부분품과 부속품	10,095 (6.1)	3,749 (5.8)	8517	전화기류	0 (0.0)	2,686 (3.2)
5	1902	파스타 등 면류	-	2,510 (3.9)	6403	신발류	-	2,168 (2.5)
6	3304	메이크업용 제품류 및 기초화장용 제품류	128 (0.1)	1,670 (2.6)	7602	알루미늄류	-	1,492 (1.8)
7	4011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	1,619 (1.0)	1,336 (2.1)	9503	세발자전거·페달 자동차 등 바퀴가 달린 완구	1 (0.0)	1,329 (1.6)
8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440 (0.3)	1,240 (1.9)	61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 브리프 등	13 (0.1)	1,105 (1.3)
9	3822	진단용·실험실용 조제시약	239 (0.1)	1,151 (1.8)	2608	아연광과 그 정광	-	763 (0.9)
10	8517	전화기,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	374 (0.2)	1,118 (1.7)	0901	커피류	452 (4.0)	608 (0.7)

주: HS코드 4단위 기준이며, 품목 순위는 2022년을 기준, '-'는 해당 데이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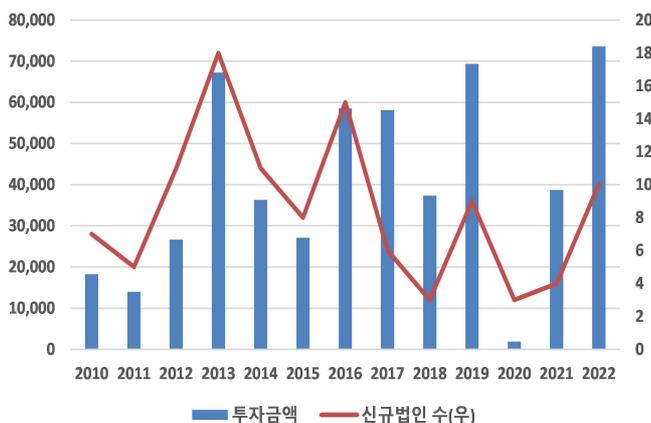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3. 4. 21).

■ 한국의 對라오스 직접투자는 2022년까지 총 6억 6,88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나, 일정한 유형이 있거나 추세적 특징을 띠기보다는 특정 업종에 대한 일시적인 투자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임(그림 28 참고).

- 2022년 기준 한국의 對라오스 직접투자 금액은 7,360만 달러로 역대 최대금액을 기록하였으나 라오스는 한국의 40위 안밖의 투자처로 한국과 라오스의 직접투자 수준은 미미한 편임(표 14 참고).
 - 2022년 기준 한국의 對아세안 직접 투자액은 87억 4,400만 달러이며, 그중 라오스는 약 0.8% 정도인 7,360만 달러 수준에 그침.

그림 28. 한국의 對라오스 직접투자 추이(2010~22)

(단위: 천 달러, 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검색일: 2023. 3. 31).

표 14. 한국의 주요 투자처(2012, 2022)

(단위: 백만 달러)

2012			2022		
순위	국가명	금액	순위	국가명	금액
총계		29,693	총계		77,167
1	미국	5,899	1	미국	27,769
2	중국	4,272	2	캄보디아	9,382
3	호주	2,237	3	중국	6,589
4	홍콩	1,631	4	룩셈부르크	4,938
5	네덜란드	1,297	5	싱가포르	3,001
6	캄보디아	1,192	6	베트남	2,754
7	베트남	994	7	캐나다	2,452
8	인도네시아	982	8	헝가리	1,841
9	브라질	979	9	저지	1,589
10	필리핀	938	10	건지	1,589
...
49	라오스	27	41	라오스	7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검색일: 2023. 4. 17).

- 그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라오스의 수력발전을 포함한 전기, 가스업 부문과 금융 및 보험업 부문에 적극 투자 중이며, 전통적인 투자 업종이었던 차량 수리업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임(표 15 참고).
 - o 2011~16년(5개년) 기준 한국의 對라오스 직접투자는 약 2억 2,977만 달러이며, 투자 비중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7%, 금융 및 보험업 36.2%, 도소매 및 차량수리업 5.7% 순으로 나타남.
 - o 다만 2017~22년(5개년) 기준 한국의 對라오스 직접투자는 약 2억 7,899만 달러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이 직접투자의 절반 이상(56.7%)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 32.8%, 건설업 4.9% 순으로 집계됨.

표 15. 한국의 對라오스 업종별 직접투자 비교(2011~16, 2017~22)

(단위: 천 달러, %)

분야별	2011~16(누적)		2017~22(누적)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229,771	(100.0)	278,995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4,030	(1.8)	4,433	(1.6)
광업	11,272	(4.9)	-	-
제조업	9,280	(4.0)	1,624	(0.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85,033	(37.0)	158,103	(56.7)
건설업	14,036	(6.1)	13,573	(4.9)
도소매 및 차량 수리업	13,094	(5.7)	1,301	(0.5)
운수 및 창고업	10	(0.0)	125	(0.0)
숙박 및 음식점업	2,131	(0.9)	2,706	(1.0)
정보통신업	0	(0.0)	267	(0.1)
금융 및 보험업	83,172	(36.2)	91,476	(32.8)
부동산업	380	(0.2)	1,682	(0.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52	(0.2)	2,508	(0.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500	(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294	(2.7)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26	(0.1)	669	(0.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42	(0.1)	30	(0.0)
기타	20	(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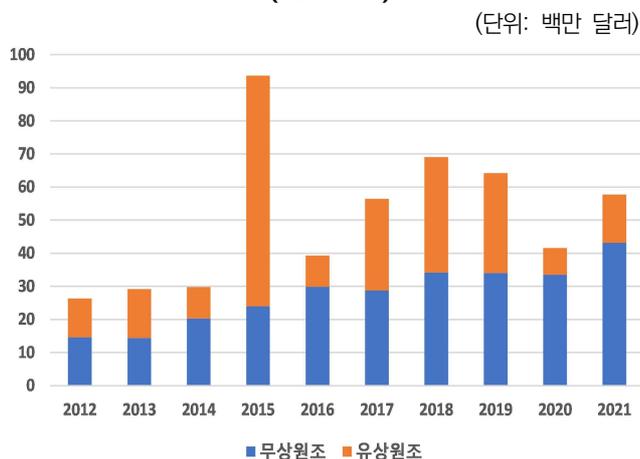
주: '-'는 해당 데이터 없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검색일: 2023. 3. 31).

■ 전통적인 중점협력대상국인 라오스에 대한 무상원조는 2012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유상원조는 연도별로 금액 편차가 크나 대부분 에너지 부문을 지원함(그림 29과 표 16 참고).

- 한국은 對라오스 개발 협력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보건 환경 개선 ▲교육 및 교통 분야 지원 등을 통해 라오스의 최저개발국 졸업에 기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함.³⁹⁾
- 한국의 대라오스 무상원조는 2012년 기준 1,465만 달러로 시작해 지속 증가하여 2021년 기준 약 2.9배 늘어난 4,313만 달러를 기록함.
 - 2012~21년 누적 기준 보건(25.7%), 교육(15.9%), 농업, 임업 및 어업(15.8%) 순으로 나타나 한국의 대라오스 ODA 중점협력 목표와 대부분 일치함.
- 한편 유상원조의 경우 연도별 지원액의 편차가 크나, 대부분 수력 발전 및 전력 송배전 등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44.9%)에 지원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물공급 및 위생(29.7%), 정부 및 시민사회(8.1%), 운송 및 저장(6.5%) 등으로 나타남.
 - 2015~19년 기간의 대라오스 유상원조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 '라오스 북서부 지역 송전사업', '라오스 조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으로 크게 증가함.⁴⁰⁾

그림 29. 한국의 對라오스 ODA 추이
(2012~21)



주: 불변가격(Constant Price) 기준 무상 및 유상원조로 구분함.

자료: OECD(검색일: 2023. 4. 23).

표 16. 한국의 對라오스 ODA 상위 5개 지원 분야
(2012~21 누적)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무상원조 분야	금액 (비중)	유상원조 분야	금액 (비중)
총계		261.6	총계	236.6
1	보건	67.3 (25.7)	에너지	106.3 (44.9)
2	교육	41.6 (15.9)	물공급 및 위생	70.3 (29.7)
3	농업, 임업 및 어업	41.3 (15.8)	정부 및 시민사회	19.2 (8.1)
4	정부 및 시민사회	26.1 (10.0)	운송 및 저장	15.3 (6.5)
5	그 외 다중섹터	23.9 (9.1)	농업, 임업 및 어업	9.1 (3.9)

주: 불변가격(Constant Price) 기준 무상 및 유상원조로 구분하였으며, 2012~21년 누적 금액 기준임.

자료: OECD(검색일: 2023. 4. 23).

39) KOICA 홈페이지, https://www.koica.go.kr/koica_kr/934/subview.do(검색일: 2023. 4. 23).

40) ODA Korea, <https://stats.odakorea.go.kr>(검색일: 2024. 4. 23).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양국의 경제협력 규모는 작지만, 라오스는 우리의 전통적인 ODA 중점협력 대상국인 데다가 최근 발표한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당사국이라는 점에서 라오스 경제 상황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불확실성 지속 또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도 있음.

- 라오스는 2022년 12월 발표된 인태전략의 비전(자유, 평화, 번영)과 협력 원칙(포용, 신뢰, 호혜)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 2023년 4월 확정된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주요 파트너임.
- 한국은 또한 라오스에 대한 주요 채권국 중 하나라는 점에서 라오스의 대외채무를 둘러싼 상황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라오스 경제의 특징과 최근의 상황 변화를 고려해 양국 간 개발협력전략을 다시 점검하거나 재수립하는 것도 필요함.

- 한국의 대(對)라오스 개발협력 전략에 농업 위주,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의 미발달, 내륙국 등 라오스의 구조적 특징 등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상황과 달성 여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 등을 새롭게 고려하는 것도 중요함.
- 이와 함께 최근의 경제상황 변화, 특히 '불확실성 지속'은 라오스의 실질소득 감소, 더 나아가 빈곤문제 악화로 연결될 수 있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중요성을 더해가는 글로벌 공급망(GSC)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라오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함.

- 주요국의 희토류 무기화 가능성과 전략자원 국유화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라오스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라오스는 구리, 금, 주석, 납, 아연, 보크사이트, 철광석 등 많은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매장량 역시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미개발 단계에 있음.⁴¹⁾
 - 중국은 2022년 9월 라오스-중국 합작회사를 통해 라오스 내 희토류 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최근 라오스가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광물자원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경우 물류를 중심으로 한 라오스의 경제환경 변화가 가시화될 경우를 대비해 중장기 차원에서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2021년 12월 개통된 라오스-중국 고속철도가 라오스의 관광업 및 물류를 빠르게 개선시키고 있는 데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변국과의 철도수송망 구축 및 심해항만 개발은 라오스의 물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가능성이 큼.
- 여기에다가 GMS를 통한 경제회랑 개발과 최근 활발하게 개발되는 SEZ도 라오스의 투자환경 개선을 앞당길 것으로 보임.^{KIEP}

41) エネルギー・金属鉱物資源機構(2021), p. 1.

참고문헌

[국문자료]

- 민혁기, 고준성, 김천곤, 나혜선, 김한성, 주용식, 김준형, 이창근. 2018. 「한-CLMV 양자 간 협력강화를 위한 전략 연구」. 산업연구원.
- 법무부. 2016. 「투자·비즈니스 가이드 핸드북: 라오스편」.
- 이재호. 2023.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 및 무역수지 사상 최대 기록」. 지역연구 제1호 동향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장경. 2021. 「2022 라오스 진출전략」. KOTRA 자료 21-223.
- 정재완. 2022. 「라오스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 _____. 2023. 「아세안의 산업 및 무역 구조 분석과 미래 전망」. 태재 아카데미.

[영문자료]

- Asian Development Bank(ADB). 2023. *Asian Development Outlook*.
-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Lao PDR. 'Vision2030 and 10 Year SocioEconomic Dev Strategy 2016_2025 LAO.'
- IMF. 2023. *World Economic Outlook: A Rocky Recovery*.
- Jeffrey D. Sachs, Guillaume Lafortune, Christian Kroll, Grayson Fuller, and Finn Woelm. 2022.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
- Ministry of Finance. 2022.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tatistic Bulletin: 2021*. Vol. 03.
- Ministry of Finance. 2021. *Annual PPG Debt Statistics Bulletin: 2020*.
- National Assembly Lao PDR. 2016. 'LAW ON INVESTMENT PROMOTION(Amendment).'
- World Bank. 2022. *LAO PDR ECONOMIC MONITOR: Tackling Macroeconomic Vulnerabilities*.

[일문자료]

- 自治体国際化協会 シンガポール事務所. 2021. 「ASEAN における観光政策: タイ・ベトナム・フィリピンにおける地方誘客を中心に」.
- 松井秀幸. 2023. 「ラオス財政」.
- エネルギー・金属鉱物資源機構. 2021. 「世界の鉱業の趨勢2021: 라오스」.

[인터넷 자료]

- 김필성. 2022. 「라오스, 환율 및 물가 불안 속 외환관리법 개정안 공포」. KOTRA 해외시장뉴스 (12월 9일).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HotClip/actionKotraBoardHotClipDetail.do?MENU_ID=420&CONTENTS_NO=1&pNttSn=198970(검색일: 2023. 4. 18).

- 김필성. 2022. 「라오스, 환율 불안에 유류 공급 차질까지...제2의 스리랑카 되나」. KOTRA 해외시장뉴스 (5월 23일).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194538(검색일: 2023. 3. 13).
- 장경. 2022. 「라오스 경제대책 키워드: 외환관리, SME 육성, 국영기업 개혁」. KOTRA 해외시장뉴스 (9월 15일).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196735&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2022%2F04%2F01&pEndDt=&sSearchVal=&pRegnCd=01&pNatCd=418&pKbcCd=&pIndustCd=&sSearchVal=(검색일: 2023. 4. 25).
- KOSIS 홈페이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AS017&conn_path=I2(검색일: 2023. 4. 23).
- KOTRA. 2017. 「라오스 개정 투자촉진법 어떻게 변했나」.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59986(검색일: 2023. 4. 23).
- Chris Devonshire-Ellis. 2021. "Laos Planned Railways: Opening a National Rail Network in 2021." ASEAN Briefing. (February 10). <https://www.aseanbriefing.com/news/laos-planned-railways-opening-a-national-rail-network-in-2021/>(검색일: 2023. 3. 14).
- Special Economic Zone Promotion and Management Office 홈페이지. "SEZs in LAO PDR." <https://www.laosez.gov.la/index.php/en/where-invest/sezs-in-laos>(검색일: 2023. 4. 27).
- アサダヨウスケ. 2022. 「ラオスでの経済危機」. Global News View. (10월 20일). <https://globalnewsview.org/archives/19787>(검색일: 2023. 4. 12).
- 山田健一郎. 2023. 「1月のインフレ率 前年同月比40.3%に上昇」. JETRO ビジネス短信. (2월 14일). <https://www.jetro.go.jp/biznews/2023/02/06a3ad722ead325.html>(검색일: 2023. 4. 21).
- 山田健一郎. 2022. 「ラオス中銀 外貨不足の原因と対策を発表」. JETRO ビジネス短信. (5월 19일). <https://www.jetro.go.jp/biznews/2022/05/51227b427ef3e30f.html>(검색일: 2023. 4. 20).
- 三上輝明. 2016. 「ラオスは国土の3割以上に不発弾が埋まっている! 完全撤去に200年も」. 『ganas』. (7월 31일). <https://www.ganas.or.jp/20160731luxo/>(검색일: 2023. 4. 11).

[통계 DB]

- 한국무역협회 K-sat. <https://stat.kita.net/>(검색일: 2023. 3. 31).
- 한국수출입은행. <https://stats.koreaexim.go.kr/main.do>(검색일: 2023. 3. 31).
- OECD.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23. 4. 23).
- KOICA. https://www.koica.go.kr/koica_kr/934/subview.do(검색일: 2023. 4. 23).
- ODA Korea. <https://stats.odakorea.go.kr>(검색일: 2024. 4. 23).
- IMF Data(검색일: 2023. 3. 20).
- Laos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DB(검색일: 2023. 4. 13).
-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검색일: 2023. 4. 27).
- World Bank data(검색일: 2023. 4. 13).